

“한일 해저터널 뚫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제안



박삼구(사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해저터널을 건설할 것을 제안했다.

박 회장은 10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비즈니스 서밋 라운드테이블(BSR)'에 참석해 “한일 양국간 관광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해저터널을 통해 유럽이 하나가 된 대표적인 예가 영-프랑스 해저터널”이라며 “1994년에 개통된 영-프랑스 해저터널을 통해 지금까지 2억1000만 명의 여객과 1억 7000만 t의 화물이 영국과 유럽대륙을 오가며 유럽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일 해저터널이 앞으로 한중 해저터널과 연계된다면 중국과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전체는 물론 향후 유럽과도 연결돼 유라시아 대륙 횡단의 대동맥이 완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진흙 기자 jinhup@donga.com

東亜日報

2008 年 10 月 11 日

「韓日海底トンネルを掘ろう」

朴三求 クンホアジアナ会長 提案

朴三求(写真) クンホ(金湖)アジアナ会長が韓国と日本を連結する海底トンネルを建設することを提案した。

朴会長は 10 日ソウル中区ジャンチュン洞にある新羅ホテルで開かれた「第 2 次ビジネスサミット ラウンドテーブル(BSR)」に参加し、「韓日両国間の観光交流を増進するためにこのような案が必要である」と語った。

氏は「海底トンネルを通してヨーロッパが一つになった代表的な例が英仏海底トンネルだ」と言い、「1994 年開通した英仏海底トンネルを通して今までに 2 億 1000 万名の旅客と 1 億 7000 万 t の貨物がイギリスとヨーロッパ大陸を行き来しヨーロッパ経済活性化に役立つ」と語った。

さらに「韓日海底トンネルが今後、韓中海底トンネルと連携すれば、中国とロシアなど東北アジア全体は勿論、今後ヨーロッパとつながるユーラシア大陸横断の大動脈が完成する」と加えた。